헤르모폴리스의 있는 헬리오폴리스와는 또다른 어둠의 바다이자 또다른 혼돈의 신 누의 표면에서 성스러운 거위와 오리 한마리가 태양의 일출로서 거대한 알을 낳았고 거위가 낳은 알에서는 4마리의 뱀을 연상시키는 괴물 4마리가 또다른 하나에서는 양서류와 파충류가 섞인 괴물 각각 4마리가 태어났으니 대양을 상징하는 누마와 나우네트, 질량을 상징하는 헤흐와 하우헤트, 어둠을 상징하는 케크, 카우네트, 잠재성을 상징하는 아마라와 아마우네트이고 이들을 통틀어 오그도아드라고 부른다.

그들중 누마와 나우네트가 낳은 아홉번째와 열번째신들이 빛과 어둠의 자손인 성신이자 무한한 뱀, 그리고 그 뱀들이 교합하여 낳은 성수가 갑충 케프리, 성조 베누, 성우 므네비스,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을 따르는 흉폭한 뱀 우라에우스이다.